김치 인류무형유산 된다

metro

메트로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 www.metroseoul.co.kr

삼성·두산 "1차전 잡아라"

30㎞ 상공 올라 지구 2시간 감상 8000만원 내세요

지상 약 30㎞ 상공에 거대한 풍선을 띄워 지구 대기의 끝을 체험해 보는 스릴 만점 우주여행 상품이 나올 전망이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미국 기업 월드뷰(세칭 '라근스페이스')가 개발 중인 초대형 헬륨가스 기구와 탑승용 캡슐(비행선)의 모형도를 공개했다. 승객들은 풍선에 매달린 비행선 안에서 약 2시간 동안 거대한 창문을 통해 푸르게 펼쳐지는 지구 외연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지름이 축구장 크기만한 이 기구에는 한 번에 8명까지 탈 수 있다. 티켓 가격은 7만5000달러(약 7942만원) 정도다. 풍선 기구는 현재 막바지 실험 단계를 거치고 있으며 승인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16년께 탑승 가능하다. /AP 연합뉴스

블랙아웃 막을 '마법배터리' 뜬다

집에서 전기 만들어 비상시에 쓰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 'ESS' 눈길

공무원 A씨는 유난히 무더웠던 올해 여름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로 정부가 공무원 에어컨 가동을 줄이거나 아예 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수십만 원씩 나오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면서 에어컨 스위치에 쉽게 손이 가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걱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삼성·LG·SK 등 대기업들이 가정용을 포함한 에너지 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ESS) 분야에 속속 뛰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삼성·LG 등 대기업 잇따라 개발

ESS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장치를 뜻하는 말로, 일반 휴대전화용 배터리를 수천~수십만 개 분량으로 대형화한 것. 대형화한 배터리를 전력 계통에 연결하면, 이른바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전력 소모 최고치 돌파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특히 가정에 설치해 비상시 정전 대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값싼 심야 전기 이용 및 가정용 태양광 등 자가발전설비에도 이용할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삼성SDI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1년 10월 일본의 니치콘사에 가정용 ESS 독점 공급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 독일 키코사와 ESS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독일 유니코스사와 미국의 익스트림파워, 이탈리아의 로시니사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전 세계에서 ESS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

LG CNS는 지난 7월 태양광발전소에 ESS를 구축해 발전소의 전력 생산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대화하는 '마이크로그리드 솔루션'을 출시했다.

LG CNS는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사업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솔루션을 개발했고 LG솔라에너지의 태안 태양광발전소에 시험 적용해 실증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SK C&C도 강릉시와 함께 저탄소 녹색도시 스마트 인프라 사업을 진행하며 ESS를 적용했다. 100kW급 전환경 리튬이온 ESS를 구축해 낮에 생산된 여분의 전기에너지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에너지가 생산되지 않는 야간에 활용, 실질적인 에너지 독립성 및 탄소 배출 제로화를 구현했다.

유진기업은 유진에너팜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미 가정용 하이브리드 타입 4kwh급 시제품을 완성했고, 100kwh급 빌딩 및 산업용 ESS 시제품도 올해 내 출시할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지난 6월 중국 선양에 현지 법인인 '심양유진BESS상무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최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 업체와 현지 합작 법인 설립을 통한 시장 진출을 논의 중이며 올해 말 미국 일리노이 주정부의 ESS 보급 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여름 원전 가동 중단 등에 따른 전력 공급 불안이 현실화되며 에너지 관련 산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ESS가 고가 배터리를 사용해 도입 가격이 높아 본격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등 정책 변동이나 전기요금 상승 등 시장 환경이 바뀌면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균기자 kms1@metroseoul.co.kr

다음달 중순부터 초겨울

12월엔 서해안에 폭설

11월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초겨울 날씨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올 전망이다.

12월에는 서해안 지방에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3개월·1개월 전망'을 통해 11월 중순부터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고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추운 날씨를 보이겠다고 23일 밝혔다.

11월 초순에는 일시적인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의 변화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11월 중순부터는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이 평년(4~11도)보다 낮고 강수량은 평년(5~30㎜)보다 적을 전망이다.

11월 하순에는 기온이 평년(2~10도)보다 더 떨어지고 강수량도 평년(9~23㎜)보다 적을 것으로 관측된다.

12월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3~6.5도)보다 낮은 추운 날씨를 보일 때가 많고 서해안 지방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곶감마을'이 내린다는 상강인 23일 충북 영동에서 한 주민이 곶감 건조장에 감을 내걸고 있다. /뉴시스

1월에는 주기적으로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기온 변화가 크고 지역에 따라 많은 눈이 예상된다.

◆ 오늘부터 주말까지 반짝 추위

한편 기상청은 24일은 고기압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장윤희기자 grass100@

"박대통령 불공정 대선 수혜자…책임져야"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대중의 성명을 발표한 민주당 문재인(오른쪽) 의원이 23일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기재위원회 의실을 들어서고 있다. 오른쪽은 박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국정원 선거 개입' 포문…"왜 자꾸 불복 말해 국민·야당 입 막나"

지난해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23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논란 및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 기관들의 대선 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며 "왜 자꾸 대선 불복을 말하면서 국민과 야당의 입을 막으려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면서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김광진 의원 등 몇몇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형 포털, 트위터 게시판 등에 정치적 글을 올린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이 4명이 아닌 블로그 2명, 트위터 5명, 오유 8명 등 지금까지 확인된 인원만 15명에 달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또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e메일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트위터 계정 402개를 확보하고 미국 트위터 본사의 서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와 사법 공조를 요청했지만 법무부 측은 "402개 계정이 너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니 줄이자"는 입장을 보인 사실이 추가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수사 중인 댓글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등을 운운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이력서로 신상 터는 기업들

기자 수첩

장율적
<경제산업부 기자>

부모님의 직업·직위·연봉, 본적, 자가 주택 또는 전세 여부 체크 필수.

결혼정보회사 회원 신청서가 아니다. 하반기 공채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이력서 항목이다. 공란으로 비워두면 지원서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친절히 안내창까지 뜬다. 각종 취업 카페에서는 구직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취업은 내가 하는데 왜 부모님 스펙이 필요하냐는 것이다. 주택의 전세·월세 여부를 묻는 것도 황당하다.

구직자 연령은 20대 중후반에 몰려있다. 이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로 현역에서 은퇴할 시기다. 한 취업 준비생은 "50세 넘어서 직장 다니는 부모님이 얼마나 계시겠느냐"면서 "국세청 공무원 자녀면 그냥 합격일 것 같다"고 씁쓸한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기업들의 구직자 신상 털기는 이번만이 아니다. 구직자들은 인터넷에서 원서를 작성하기 전 정보수집 동의란에 체크를 하게 된다. 이때 개인정보는 필수 정보와 선택적 정보로 나뉘는데 기업들은 선택적 정보마저 동의하지 않으면 지원서 접수가 안 된다고 공지한다. 한번 수집된 개인정보가 차후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안내도 없다.

구직자들은 취업 시장에서 철저한 을이다. 서류 접수부터 시작되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는 구직자의 부담을 늘리고 기업의 정보 관리 비용만 크게 만든다. 채용에 꼭 필요한 정보라면 면접 대상자에게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일까. 소모적인 구직자 신상 털기를 줄이는 채용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

서울대병원 6년 만에 총파업…곱지 않은 시선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한 환자가 23일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노조의 집회 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사는 ▲선택진료제 폐지 ▲임금 총액 13.7%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사안에 대해 40여차례 협상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노조는 연건동 서울대병원·강남 건강검진센터, 동작구 보라매병원(위탁운영)에서 이날 오전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손진영기자 son@

日, 독도영유권 영상 유포…정부 "즉각 삭제하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며 또다른 도발을 한 것으로 23일 드러나자 우리 정부가 일본에 강력히 항의하며 동영상 즉각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로 쿠라이 타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 정부가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국제홍보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를 담은 구술서(외교문서)를 전달했다.

앞서 일본 외무성은 지난 16일 '여러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아십니까'라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하는 1분27초짜리 동영상을 외무성 동영상 홍보 채널 명의로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동영상에는 '17세기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확립하고 이후 1905년 각의 결정을 통해 재확인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겼다. 이 동영상 조회수는 23일 오전 6600여회를 넘어섰다. /기자

뉴스 & 뉴스

소규모 떡집도 주문배달 허용…인터넷 홍보 가능

● 소규모 영세 떡집에도 시중의 3분의 1 가격인 정부 양곡 매입과 근거리 주문 배달이 허용된다.

안전행정부는 23일 "최근 열린 지방규제개선위원회에서 앞으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선해 제조시설이 16㎡ 미만인 떡집도 정부 관리 양곡 매입 자격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홍보와 근거리 배달 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떡 판매의 70~80%가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는데도 소규모 떡집들은 인터넷 홍보나 배달 판매가 금지돼왔다.

노르웨이 "한국 주도 녹색성장기구 지원 일시중단"

● AP통신은 노르웨이 정부가 한국 정부가 추진한 첫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대한 기여금 지원을 일시 중단했다고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노르웨이 정부는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GGGI 의장이 15회 출장비로 18만 달러(약 1억9000만원)를 지출한 것에 대한 과다 지출 논란이 일자 GGGI에 대한 추가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여금 1000만 달러(약 106억원) 지원을 중단했다.

"KBS 고위임원 차량 구입·유지비 5년간 21억"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3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신료 인상,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 방만 경영 등의 문제를 놓고 열띤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에 앞서 공영방송으로서 방송 공정성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8개월 동안 9시 뉴스 첫 소식으로 대통령 관련 보도가 방송된 경우가 30번에 달했다"면서 "전두환 군부정권을 찬양했던 '땡전뉴스'와 다를 바 없는 '땡박뉴스'를 방불케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최근 5년간 KBS가 길환영 사장을 비롯, 임원들이 타는 국산 고급 차량 7대를 구입하거나 렌트, 유지하는 데 21억원의 비용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역시 KBS의 경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KBS의 적자폭이 2011년 650억원, 지난해 380억원을 기록했고, 올해도 600억원 적자가 예상된다"며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여재용기자 [illegible]

김치·김장문화 인류무형유산 된다

유네스코 등재권고 판정 12월 확정…한국 총 16건

'김치와 김장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23일 문화재청은 무형유산위원회 심사보조기구가 오는 12월 2~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를 앞두고 김치와 김장문화에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사전심사에서 등록이 권고된 문화유산이 본 심사에서 탈락한 사례는 없다.

이에 따라 김치와 김장문화는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공식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치 등재가 확정되면 한국은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등을 합쳐 모두 16건에 이르는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조선미기자

보직 없어 자랑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부장님'

한국거래소의 부부장 이상 간부급 직원 중 절반가량이 보직 없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거래소의 부장(1급)과 부부장(2급) 직원 117명 중 56명이 보직 없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장급은 36명 중 47.2%인 17명이, 부부장급은 81명 중 48.1%인 39명이 보직이 없다. 이들 중 지팡 관리, 시설관리, 예비군 민방위 업무 등을 담당하는 간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균기자

"잘 살아!" 서울대공원 관계자가 2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멸종 위기종 복원사업 일환으로 인공증식한 꿩 50마리를 야생 방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남 고등학교서 결핵 138명 집단감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고등학교에서 결핵 환자 140여 명이 발견돼 보건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질병관리본부는 5월 서울 강남구 소재 A고등학교에서 결핵 양성반응을 보이는 학생 1명을 확인하고, 전교생·교직원 1361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138명이 결핵에 감염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학생 3명, 교사 2명 등 총 5명이다. 잠복균에 감염됐지만 아직 발병하지 않은 잠복 결핵 감염 환자는 133명이었다. /김유리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나일론 스타킹 발매 시작

미국의 듀폰사가 1939년 10월 24일 델라웨어에서 나일론 스타킹을 첫 시판했다. 이 상품은 뉴욕 만국박람회의 최고 인기 품목이었고 이듬해 뉴욕에서 판매되자마자 여성들의 폭발적 인기를 끌어 몇과 몇 시간 동안 400만 켤레의 스타킹이 팔렸다. 나일론을 발명한 천재적 유기화학자 월리스 캐러더스 박사는 나일론이 이토록 성공적인 상품이 될 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국회에 쌓여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 100여 건 처리 좀…" 현오석 부총리의 한탄

정치에 발목 잡힌 경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 활성화 대책 실행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국정과제 이행 등을 포함해 1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으로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를 핵대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외국인 투자 시 증손회사의 최소 지분율을 50%로 완화하는 외투법 개정안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있다.

현 부총리는 "각종 대책이 적기에 집행돼 최근 경제 회복 움직임이 확고한 추세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경제계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날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출한 ICT R&D 중장기 전략도 발표했다. 이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향후 5년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 개발(R&D)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타 분야의 산업과 ICT의 융합을 촉진하고, 12조9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7조7000억원 규모의 부가가치, 18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현 부총리는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정보 보호 등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기초·원천 융합 등 각 분야의 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창의 과 성장' 글로벌화에 이르는 ICT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하태균기자 kuat@metroseoul.co.kr

공원서 가을 느끼세요

부산그린문화축제 오늘 개막 · 탐방·전시 등 17개 프로그램 진행

축제의 계절 '가을'을 맞아 부산지역 공원 등에서 공원과 함께하는 '부산그린문화축제'가 24일 개막된다.

부산시는 (사)부산그린트러스트, (사)한국조경사회 부산시회, 해아리아 공원포럼, 부산대학교 등 지역 단체들과 함께 내달 2일까지 열흘간 공원·녹지 등의 환경 정비를 비롯해 학술 행사 및 각종 문화·전시 행사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2009년 '그린부산(Green Busan)' 선포한 이래 제1기 '그린부산사업' 도약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제2기 새로운 성장기를 맞아 '푸르고 아름다운 명품 도시 부산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로써 주요 교차로 녹화, 가로수 정비, 중앙분리대 조성, 학교 공원화, 고가도로 하부 녹화 등 도심 속 공원 녹지 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축제는 그린부산사업 성과를 시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APEC나루공원 등 주요 공원 등에서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정비를 비롯해 정책 학술 행사, 탐방·문화·전시행사 등 총 6개 분야 17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기간 중 구·군별로 환경 정화 캠페인과 함께 가로변 일제 정비 작업이 추진된다.

민·관 협치 행사는 26일 오후 2시 북구 디딤돌 녹지센터 앞마당에서 덕포 어울누리쉼 쉼터 현판식을 갖고 30일 오후 2시 가덕도 율리마을에서는 팽나무 이식 3주년 기념 행사를 연다. 또 이날 오전 11시에는 사하구 에어원에서 아름다운 조경 기부 행사가 진행된다.

정책학술행사는 27일 오전 10시 부산시민공원에서 두석이 행사에 이어 28일에는 녹지 공무원 현장 교육 등이 진행된다. 31일 오후 2시부터는 KNN씨어터에서 가로수 돌보미단 발대식과 그린부산포럼이 잇따라 열린다.

문화 행사는 APEC나루공원에서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오감충만 와컨두어듬 비롯해 26일 오전 10시 공원 가을 운동회가 열리고 7일 오후 1시부터 금강공원 민속예술관 야외마당 전통 민속놀이 한마당을 펼친다.

또 내달 2일에는 편편파크(나루공원)와 공원아늑지(평화공원) 등이 열린다.

이 밖에도 부산시청 1층 로비와 도시철도 통로에서 분재전시회(29~31일)와 그린부산조경전시회(28~31일)가 열리고 평화공원 및 유엔공원에서는 국화축제를 29일부터 내달 10일까지 개최한다. /뉴시스

부경경마공원 27일까지 가을문화축제 지난 19일부터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펼쳐지고 있는 '2013 가을문화축제'에 많은 시민들이 방문해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오는 27일까지 공원 내 더바운드 광장 곳곳에서 다채로운 무대 행사로 꾸며진다.

부산교통공사 신입 채용경쟁률 32 대1

2013년도 부산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83명)에 2,625명이 지원해 평균 31.6 : 1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통공사는 운영, 기계, 전기, 통신, 업무 등 5개 직렬 26명을 채용하는 공개경쟁에는 총 2,107명이(81:1) 지원했으며 도시철도 운전면허 취득자, 고졸 기능인재 등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경력경쟁에는 57명 채용에 518명이(9:1)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장 높은 경쟁률은 공개경쟁-운영직렬 부분으로 3명 모집에 980명이 지원해 326.7:1의 역대 최대 경쟁률을 보였다. 2명을 채용하는 경력경쟁 기계직렬 부분에는 5명이 응시해 가장 낮은 2.5: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2,625명 지원자 중 20대가 1,988명으로 76%를 차지했다. 30대가 582명(22%), 40세 이상은 55명(2%)이며 최고령 지원자는 59세(1명), 최연소자는 20세(5명)로 기록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1,995명(76%)으로 집계됐다. 또한, 역대 채용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선발하는 장애인 부분(8명, 9.6%)에는 85명이 지원해 10.6: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정하균 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법원 공익요원 부유층·고위직 자녀용"

부산법원에서 군 복무를 대체해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이 사회적으로 부유층 고위직에 있는 자녀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부산고등·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서기호(정의당) 의원은 "타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법원의 경우 복무요원 업무가 상대적으로 낮아 사회적으로 부유층 고위층의 자녀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고등·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복무요원은 기업인(사장 4명), 전문직(3명), 치과의사(1명), 은행지점장(3명), 소방서장·소방령(2명), 공기업 기관장(2명), 대기업 간부(2명) 등 자녀가 총 18명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각 지법에서 발생한 사회복무요원 공석에 대한 신청자를 병무청에서 보충하는 과정에서 우선 부모의 직업을 고려해 선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상황이 아닙니다 23일 오전 부산 영도구 부산해경 앞바다에서 열린 합동 해양훈련에 참가한 해경 특공대원들이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저항을 가정한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해경 122구조대, 특수구조단, 특공대 등이 참여했다. /뉴시스

학교 환경개선 예산 '부익부 빈익빈'

부산지역에서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 가장 활발한 곳은 부산진구이며, 한 학교당 평균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된 곳은 수영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여러 차례에 걸쳐 낙후된 지역의 학교 환경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혜경(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부산 각 지역구별 시설 개선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진구는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총 666억여 원의 시설 개선 예산이 투입됐다.

부산진구에 이어 사하구는 591억여 원, 해운대구 528억여 원, 북구 462억여 원, 동래구 453억여 원 등의 순이었다. 부산 전체 16개 지역구를 놓고 볼 때 비교적 '부촌'으로 알려진 해운대구(3위)와 동래구(5위)가 상위를 차지한 반면, 금정구와 수영구는 각각 8위와 11위를 차지했다.

한 학교당 평균 투입된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수영구는 12억여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사하구(10억3000만원), 진구(9억7000만원), 동래구(9억6400만원), 영도구(9억37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권역으로 살펴보면 중부산권(연제·부산진·서·동·남·수영·영도구)은 모두 2214억여 원이 투입됐고 동부산권(기장·금정·동래·해운대구)은 1443억여 원이, 서부산권(강서·북·사상·사하구)은 1533억여 원이 시설 개선사업 예산으로 투입됐다.

태화강에 멸종위기 수달 서식 울산시는 23일 태화강 주변의 야생동물 모니터링을 위해 동물 관찰 카메라를 설치 운영한 결과 중구 다운동(백리골) 지역에서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 수달(천연기념물 330호)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사진 왼쪽은 백리골에서 발견한 수달이고 오른쪽은 뚱금소에서 발견한 수달이다. /울산시 제공

'투자상담 업종분석' 개설

한국금융투자협회 부산지회는 오는 11월 21일부터 금융 투자회사 영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위한 업종 분석 과정을 개설키로 하고 11월 15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은 올해 말과 내년도 주요 산업(업종)별 전망 및 기업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주식투자 상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업 전망 및 재무제표 분석 기법, 6개 업종별 최근 현황 및 이슈, 업종 대표 주식에 대한 투자 전망 등으로 구성된다. 6개 업종은 반도체, 전기·전자, 조선(중공업), 철강(금속), 건설(시멘트), 유통이다.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수강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www.kifin.or.kr) 참조. 문의 051)867-9746

팔관회 재현… 천년 역사 깨운다

삼광·범어사서 오늘부터 사흘간… 다양한 체험 행사도

고려시대 최고의 국가 행사로 민족 고유의 전통 습속 의례가 결합된 축제인 팔관회가 10월 24~26일까지 천태종 삼광사와 금정총림 범어사에서 열린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수불 스님) 주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교계 스님 및 각급 기관장들이 고려 복식을 입고 팔관회 재연 행사를 표현한다.

행사 첫날인 24일 오후 7시 천태종 삼광사 지관전 앞에서 불교 영화인 '길 위에서'를 무료 상영한다.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는 호국일 위령대재를 시작으로 팔관회 재현 국왕친경행렬 호국기원법회, 조하의식 재현 및 백희가무 의식이 이어진다.

조하의식은 고려시대 관복을 입은 재현단원들이 선보인다. 백희가무는 다국적 가무와 잡희를 볼 수

2012년 팔관회 봉사 모습

있던 연희를 재연해 처용무와 검무, 남사당놀이 및 판소리, 강강술래, 기악 등 총국 기예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26일 금정총림 범어사에서는 사부대중이 여덟 가지 계율을 수지하고 불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발원하는 팔관재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올 행사에는 고증을 통해 만든 윤등 2개를 행사장 좌우에 각각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사 기간 동안 삼광사에서는 잠승 만들기, 한지공예, 고려 의상 체험, 전통차 시음회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도 마련된다.

특히 이번 팔관회 재현 한마당은 국가무형문화재 등재를 목표로 봉행되 어느 때보다 그 의미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고려 멸망 후 1000년의 세월이 흘렀다. 비록 정부 지원에서 팔관회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어려울수록 연등 대신 촛불을 밝혀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기원했다. 그런 팔관회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를 바라는 건 지나친 기대일까. 다시 한 번 국가적인 관심을 기대해 본다.

한편 연합회는 팔관회 행사에 앞서 지난 15일 명륜삼연당에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화회 스님들과 전문가들이 동참한 가운데 팔관회의 불교 문화적 전승 가치를 조명하고 무형문화재 등재를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을 결의하기도 했다.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다문화 인식 개선하자"

시 '한국의 미래' 주제 강연

부산시는 우리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24일 오전 10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회가 열린다.

또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동구청 대강당에서 같은 주제로 개최된다.

한아세안센터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날 강연회에서는 '문화 다양성'과 '동남아시아 문화 전반'을 중심으로 다문화 사회의 문화 간 조화를 이루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연회에는 결혼이주자 가족,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주민 및 각계 인사 등이 누두 참석한 가운데 강동완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조홍국 부산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등 강사진이 문화 다양성과 전 세계적 다문화 추세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다문화 사회에 대해 강의하고 조언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대외개방 정책을 통한 국가 발전 과정에서 문화 다양성이 피할 수 없는 정치·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강연회는 '다양성 속의 조화'를 이루는 데 성공한 지역 협력기구인 아세안의 사례로부터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귀감을 얻고 문화 다양성의 중요성을 짚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센터 관계자는 "향후 아세안 사례를 토대로 한국 다문화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하반기 통합무역 상담회 23일 오전 부산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3 하반기 통합 무역상담회'에 참가한 부산지역 중소기업 100여 곳이 해외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을 하고 있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미국 7개사, 일본 22개사, 중국 13개사, 베트남 8개사 등 총 4(?)개국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캐나다, 일본, 중국, 베트남 50개사 바이어들이 참가했다. /뉴시스

폐화석비료 구매입찰 담합 적발

부산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2012년도 정부 무상분 폐화석 비료(굴 껍데기) 구매 입찰에서 5개 업체 등 7개 사업자가 사전에 투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지난 2011년 11월 9일 2012년도 정부 무상분 폐화석 비료 총 수요 물량 4만6281t 중 2만7769t에 대한 구매 입찰을 희망 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실시하자, 7개사는 사전에 모임을 갖고 입찰에서의 투찰 물량을 상호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7개사의 입찰 책임자들은 2011년 11월 8일 서울 충정로 농협중앙회 입찰설명회에 참석 후, 다음날 호텔에 투숙해 모임을 갖고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저가 투찰 등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입찰에서의 투찰 물량을 사전에 배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7개사 모두가 최종 합의한 투찰 물량 그대로를 예정 가격(14만5000원)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수준인 14만4900~14만5000원의 투찰 단가로 낙찰 받았다.

입찰에서 투찰 물량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는 경쟁입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이는 폐화석 비료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폐화석 비료를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요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경남정보대 삼성 소매유통과정 수료식 경남정보대학교 총장 황일주는 지난 22일 오전 교내 견석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 소매유통과정 정회조사 수여일 만종 수료식'을 개최했다.

지역 광고인 과정 개강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부산지사는 11월 1일부터 16일까지 금·토요일 총 24시간의 일정으로 '2013년 부산지역 광고인 과정'을 개강한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이번 광고인 과정에는 황성욱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금요일 강의를 시작으로 현재 광고업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심시레 아이디어달리 대표, 문훈 2015브라더스 이사, 이봉근 이노션 국장이 토요일 강의를 맡아 진행한다.

전 강사진이 현업 출신 및 실무진으로 구성된 이번 교육과정은 광고 전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예년에 비해 더욱 강화된 실무 중심의 강의를 통해 실무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부터 29일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baco.co.kr)에서 수강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 문의 051)751-0400

세계 국제기구 인사 부산 방문 잇따른다

전 세계 국제 기구 및 기업 인센티브 키맨(Key-man)들이 잇따라 부산을 찾고 있어 눈길을 끈다.

부산관광공사는 2017년 제11차 국제관광경스포츠술관광학회(ISAKOS) 국제학술대회 개최 도시 선정을 위해 23일 국제본부에서 마셜 존스 사무국장 외 1명, '2014년 부산 ITU 전권회의 D-365 기념행사'를 위해 ITU 사무총장 하마둔 투레가 사무총장이 부산을 방문해 국가원수급 의전을 수행했다.

부산은 국제회의뿐만 아니라 기업 인센티브 관련 유치 활동도 활발하다. 벡느님 주요 기업체의 인센티브 관광 송출 여행사, 기자 등 주요 관계자 12명이 오는 25~26일 양일에 걸쳐 부산 관광 명소와 MICE 시설을 둘러볼 예정이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5-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 궁 표
세계 편집인	김 종 혁
편 집 국 장	조 인 표
부산지사장·취재	김 명 준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 자 센 터	02)721-9817

2002년 5월 31일 창간 / 일간지 서울특별시 가00036

market index <23일>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2035.75	525.38	2.78	1055.80
(-20.37)	(-6.51)	(-0.04)	(-5.00)

뉴스&뉴스

렌즈 빵빵한 스마트폰 카메라
소니코리아가 23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서 스마트폰 카메라의 편리함과 디지털 카메라의 프리미엄 성능을 동시에 선사하는 신개념 렌즈 스타일 카메라 QX 시리즈 2종 'QX100'과 'QX10'을 발시했다. /뉴시스

부실 CP에 투자권유 '제2동양증권' 금지

● 24일부터 증권사가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을 투자자에게 권유하거나 고객 재산에 편입하지 못하게 된다. '동양 사태'의 여파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 창구에서 투자자에게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 증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펀드·투자 일임 재산, 신탁 재산 등 고객이 운용을 맡긴 자금에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회사채와 CP를 편입하는 것도 제한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동양증권과 골든브릿지증권의 계열사 채권 판매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또 동부증권, 유진투자증권, SK증권 등은 계열사 신용등급이 여러 단계 하향 조정될 경우 영향을 받을 위험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원래 시안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시행됐어야 했으나 당시 금융위기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면서 이번에 시행된다.

/김현정 기자 hjkim1@

기업설비투자 '10조원 단비'

● 이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시작된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투자 활성화 1~3단계 대책에서 발굴한 27조5000억원 규모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운데 10조3000억원이 투입될 5개 프로젝트가 이달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줄지어 착공된다. 이를 계기로 경기 침체의 원인 중 하나인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 /김현정 기자

아파트 주민 케이블TV 해지 쉬워진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케이블TV에 단체 계약을 한 경우 해지가 보다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 TV 단체 계약 가입자에 대한 고지 방식과 해지 절차가 일부 미흡해 시청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단체 계약이란 케이블 TV 사업자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와 체결하는 아날로그 케이블 TV 공동수신계약으로 올해 8월 말 현재 907만 가구 중 단체가입자는 217만 가구로 약 24%를 차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개별 계약과 달리 케이블 TV 사업자와 관리사무소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단체 계약의 특성상 개개인별 계약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향후 단체 가입자에게 연 2회 이상 우편·요금고지서 등의 방식으로 단체 계약의 내용, 요금 부과 절차, 해지 방법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재영 기자 ry0403@metroseoul.co.kr

카드론·리볼빙 '공포의 눈덩이'

카드대출 상품 연체율 최대 9배 급등…잔액 6개월새 1조2000억 불어

카드론, 리볼빙 등 신용카드 대출잔액과 연체율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다음달부터 금융 당국의 금리 인하 유도에 각 카드사의 카드론, 현금서비스의 금리가 2~4%포인트 인하될 예정이다. 대출 연체의 악순환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22일 금융감독원 등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2.9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2.63%보다 0.28%포인트 오른 것이다.

특히 2012년 말의 연체율은 전년 동기 대비 0.0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올 들어 연체율이 9배 넘게 급등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기간 현금서비스 연체율은 3.42%로 지난해 말 3.24%에서 소폭 상승했다.

카드대출 잔액도 늘고 있다.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대출 잔액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15조263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4조328억원보다 1조2302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2012년 한 해 동안 늘어난 카드론 대출 잔액이 3610억원임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마찬가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1년 새 연체율이 7배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리볼빙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리볼빙 서비스의 연체율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결제성 리볼빙' 1.15%, '대출성 리볼빙' 3.53%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각각 0.13%포인트, 0.68%포인트 올랐다.

이 역시 지난해 말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폭(0.09%포인트, 0.22%포인트)을 넘어선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카드대출 잔액과 연체율 급등은 두고 저신용 가계들의 살림이 그만큼 어려워진 탓으로 해석했다.

다만 금융 당국이 지난 4월 구성해 8월 발표한 '카드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모범규준'이 다음달부터 적용되면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금리가 자연스럽게 2~4%포인트 내려가는 효과가 나면서 일반 가계의 숨통을 틔울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역효과로 저신용 가계가 고금리 사금융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우려한다. 하지만 카드업계 관계자는 "각 사마다 제각각이었던 대출금리 산정 방식에 대해 업권 공통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 것이므로 신용등급이 낮다고 대출에 제약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정 기자 hjkim1@metroseoul.co.kr

미국발 환율 주락 중국발 코스피 급락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 연기로 글로벌 달러화 약세가 이어지면서 23일 원·달러 환율이 전일보다 5.0원 내리며 9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1055.8원에 마감했다. 코스피 역시 중국 긴축 우려에 전 거래일보다 20.37포인트(0.99%) 낮은 2035.75로 거래를 마쳤다. /뉴시스

국민연금 가입 길수록 기초 합산액 손해

보건부 예상액 분석결과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 합산액 비율이 절반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이 100만원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내년부터 10년간 월 9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 이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월 37만원을 받게 된다.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 총액 대비 받는 연금 합산액 비율은 6.6배가 된다. 반면 동일한 조건으로 25년간 가입했다면 이 비율은 3.7배로 떨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합산 수령액을 기준으로 장기 가입자가 불리하지 않다고 하지만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등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연동하지 않고 20만원 정액을 지급한다고 해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합산액으로 수익비를 계산하면 비슷하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인다"며 "보험료의 합산 수령액을 비교한 수익비를 따지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뉴스 & 뉴스

자랑 선호색상 1위는 흰색

● 흰색이 은색을 누르고 인기 자광 색상 1위에 등극했다

자동차 도료업체 PPG인더스트리즈는 올해 출시 자광을 분석한 결과 흰색이 25% 지지율로 20년 만에 은색을 누르고 선호 색상 1위를 차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보다 3%포인트 증가한 수치며 은색과 검은색은 각각 18%로 공동 2위에 올랐다

PPG인더스트리즈는 흰색이 주는 깔끔하고 지적인 느낌이 스마트폰 대중화와 함께 선호 색상으로 떠올랐다고 분석했다 /조광희기자

면접 큰 실수 '연락없어 지각'

● 23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276명을 대상으로 '면접에서 지원자의 실수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라고 묻은 결과 66.3%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89.6%는 지원자의 실수 때문에 탈락시킨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평가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원자의 실수로는 '연락 없이 면접 지각'(42.6%)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하국상기자

서류·방문 없이 30분내 대출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 인기

고객이 쉽게 신청하고 편하게 이용하도록 설계돼 있는 현대캐피탈 다이렉트론이 인기다 특히 서류·방문이 필요 없어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쉽고 빠르게 최고 한도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에 영향 없이 대출 한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만으로 30분 내에 빠르게 입금이 가능하다 문의 1588-5330

게임산업 10조 '규제 뚫고 하이킥'

화장품·렌탈사업 버금가는 빅마켓 수준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가 화장품·렌탈 사업과 같은 빅마켓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술·마약·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꼽힌 온라인게임의 위용과 순기능을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3일 '2013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 규모는 2011년과 견줘 10.8% 성장한 9조7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화장품을 포함한 뷰티 산업, 각종 렌탈 사업, 엑스레이 장비 관련 산업 규모와 비슷한데 통상 10조원 규모 시장은 이른바 '빅마켓'으로 분류된다

국내 게임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해 올해 10조원 규모를 돌파하고 2015년에는 12조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게임 시장은 온라인게임이 선도했고 모바일게임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온라인게임은 6조783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며 전체 게임 시장의 69.6%를 점유했고, 모바일 게임은 8009억원의 매출로 8.2%를 차지했다

PC방과 아케이드 게임장(오락실) 등 유통 부문을 제외하고 제작 부문만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다시 계산하면 온라인게임은 전체의 86%를, 모바일게임은 10.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두 가지 종류의 게임이 전체 게임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산 게임이 가장 많이 수출된 국가는 중국(36.6%)이었으며 이어 일본(26.7%), 동남아(18.8%), 북미(7.7%), 유럽(6%) 순이었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게임 시장(1117억5000만 달러)에서 국내시장(70억6300만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였다

지난해 게임 수출액은 26억3891만 달러(약 2조8000억원)로 2011년보다 11% 성장했고, 수입액은 12.6% 줄어든 1억7913만 달러(약 1900억원)였다

국내 게임 산업 종사자는 9만5041명으로 집계됐다 제작·배급업 종사자가 5만2466명으로 과반인 55.2%를 차지했고 유통·소비업 종사자가 4만2585명으로 44.8%를 차지했다

/박현준기자 sae@metroseoul.co.kr

근거리무선통신 기능 갖춘 프린터 한국HP는 23일 기업용 최초로 근거리무선통신(NFC) 기능을 장착한 레이저젯 엔터프라이즈800시리즈 프린터와 복합기 4종을 출시했다 주요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시큐어 하드디스크 덕에 보안이 강화됐다 /한국HP제공

쥬크 올뉴쏘울 미니 도전장

미니를 향해 쥬크와 올뉴쏘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각각 쥬크와 올뉴쏘울을 출시한 한국닛산과 기아자동차는 BMW 소형차 브랜드 미니를 경쟁 모델로 지목했다

지난 15일 열린 쥬크 출시회에서 다케히코 기쿠치 한국닛산 대표이사는 "쥬크는 미니 시리즈와 고객이 겹칠 전망"이라며 "쥬크가 미니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기아차 이삼웅 사장도 지난 22일 올뉴쏘울 신차 발표회에서 "미니 쿠퍼를 따라잡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모델은 2008년 쏘울 출시 이후 5년 만에 내놓는 야심작이다

미니는 '평범하지 않다(NOT NORMAL)'란 슬로건 속에 독특한 디자인과 파격적인 마케팅으로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을 거느리고 있다 /김승희기자

금융지주들 "우린 실적 4대천왕"

KB·신한·우리·하나 3분기 순이익 41% 증가 전망

KB와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금융지주가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분석한 결과 4대 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2분기 1조2000억원 보다 4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18일 실적을 공개한 하나금융지주는 3분기 순이익이 3775억원으로 2분기보다 62.9%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금융 측은 "자산건전성 개선에 따라 지난 2분기 대비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1138억원 감소했다"며 "환율 하락 등 자본시장이 안정화되면서 매매평가이익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대증권과 대신증권 등이 하나금융의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상향 조정해 각각 4만8000원, 5만원으로 제시했다.

KB금융의 실적도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오는 25일 실적을 발표하는 KB금융지주의 순이익은 4163억원으로 2분기보다 무려 15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달 29일 실적을 발표한다. 경기 악화 속에서도 2분기5553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데 이어 3분기에도 5000억원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다음달 1일 실적을 발표하는 우리금융지주도 3071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지난 분기보다 10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상반기 순이익 급감은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며 "하지만 3분기 들어 기업 리스크가 감쇄하면서 자산 건전성이 회복됐다"고 진단했다.

/안상미기자 ainu@metroseoul.co.kr

수도권 4분기 입주량 "애개!"

전국서 2만3013가구 예정 2009년 비해 반토막 수준

올해 4분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 2009년에 비해 '반 토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올 4분기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35곳 2만3013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9년 4만9193가구에 비해 46.7%로 절반에도 못 미친 수준이다. 또 전년 동기 보다 11%가 감소하는 수준으로 최근 2005년 이후 가장 적은 입주 물량이다.

권역별 입주 물량은 ▲서울 13곳, 5973가구 ▲인천 4곳 4240가구 ▲경기 15곳 8353가구 ▲신도시 3곳 4447가구 등이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과 신월동, 우면동 등 SH공사의 공공분양아파트 7개 단지 3101가구가 입주한다. 위례신도시에서도 LH공사가 짓는 송파구 생활권의 휴먼시아 2개 아파트가 올해 12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A1-11블록 휴먼시아는 전용면적 51~84㎡ 1810가구, A1-9블록 휴먼시아는 전용면적 51~59㎡ 1139가구 등이다. 11월에는 롯데건설이 서초구 방배동 방배2-6구역을 재건축한 전용면적 59~216㎡ 744가구 '방배 롯데캐슬 아르떼'가 입주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권일 리서치팀장은 "지난 2011년부터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감소폭 줄어들고 있어 내 집 마련 희망자 또는 세입자들은 연내 주택 마련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채신화기자

부동산 부활? 중개사들 "아니올시다"

과반수가 "4분기 부정적"

8.28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고 있으나 공인중개사 과반은 4분기 부동산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114가 공인중개사 1100명을 대상으로 '4분기 주택시장 전망'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52.8%가 4분기 시장 회복과 관련해 부정적으로 답했다.

내년에도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답변도 62.8%에 달했다.

4분기 주택 시장이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와 대외 경제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정부의 핵심 법안에 대한 입법 지연을 꼽은 사람이 각각 39.7%로 다수를 차지했다.

전세 선호 현상 심화에 따른 매매 전환 부진(8.6%), 가계 부채(5.2%),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여전히 높다는 수요자들의 인식(3.4%) 등의 이유가 뒤를 이었다.

4분기 주택 시장에서 회복세가 나타난다면 그 요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매매 전환 수요 확산(40.4%),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세·양도세 감면 혜택의 파급 효과(36.5%), 주택 가격 바닥 인식에 따른 매수세 증가(13.5%), 저금리 모기지 등 정부 주택자금 지원 확대(9.6%)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주택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을 묻는 항목에는 취득세 영구 인하(36.4%),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32.7%), 저금리 모기지 제도 확대(8.2%), 양도세 5년 한시 감면 연장(6.4%),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연장(4.5%) 순으로 답변했다.

/이현정기자 hjkim1@

"선배님 수능 골든벨 울려줘요!" 수능을 15일 앞둔 23일 이탈리아 초콜릿 브랜드 페레로로쉐가 서울 이화여고에 '수능 골든벨'을 세우고 학생들과 함께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무너진 100조 시대

국내 건설수주 2년째 급감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국내 건설 시장 일감이 2년 연속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 GS건설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한국건설경영협회가 주최한 '2014년 건설시장 환경변화와 대응' 발표회를 통해 내년 국내 건설 수주액은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와 내수 경기 회복 부진 등으로 91조7000억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건설 수주액은 올해도 90조4000억원으로 10년 동안 최저 수준에 그쳐 2년 연속 100조원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외 건설 수주는 올해 650억 달러에서 내년에 7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국명기자 kmlee@

뉴스&뉴스

세계에서 가장 얇은 시계 23일 서울 현대백화점 본점에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피아제의 '엠퍼라도 쿠썽 울트라씬 미닛 리피터 피아제의 기단대를 국내에 처음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추진

●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취득세 영구 인하의 적용 시점을 지난 8.28 대책이 발표된 당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에 이 같은 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들도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로 알려졌다. 8·28 이후 바로 집을 산 사람이 많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김희정기자

3분기 전월세 거래량 증가

● 부동산써브는 국토교통부 전월세 거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수도권과 지방의 전월세 거래량은 각각 20만6926건, 9만969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4%, 1.43%씩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다만 월별로는 지난 3월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김희정기자

건축물 미끄럼방지 의무화

● 앞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의 욕실, 화장실 등에는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마감 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욕실 등 바닥 마감재에 대한 미끄럼 방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김민우기자

SKT 스마트 교육로봇 누리아띠 본격적 판매

SK텔레콤이 스마트 교육 로봇 '누리아띠'의 본격적인 판매를 개시한다.

SK텔레콤은 국내 최대 로봇 전시회인 로보월드 2013 현장과 11번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24일부터 아띠를 본격 판매한다고 밝혔다. 아띠 출시를 기념해 선착순 1000명에게는 공식 판매가 54만9000원보다 약 30% 할인된 39만9000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아띠는 4~7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로봇을 만지고 움직이며 놀이를 통해 두뇌 계발과 신체 발달 등 다중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용 로봇이다.

스마트폰을 로봇의 두뇌로 활용함으로써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증강현실 기술 등을 적용해 학습 효과를 대폭 향상시킨 것이 장점이다.

/이가영기자 lly0913@

하드웨어·소프트웨어 '투트랙 대반격'

무서운 애플

아이패드 미니 신제품 해상도 두배 가격 동일 콘텐츠 제작 프로그램 맥 OSX는 전면 무료화

애플의 CEO 팀 쿡이 22일 아이패드 신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애플 대반격의 서곡일까.

최근 애플의 행보에 전 세계 IT업계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사후 '혁신이 사라졌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팀 쿡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해온 '고가 중저가' 투트랙 전략이 서서히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9월 미국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에서 경쟁자인 삼성전자를 무려 10% 포인트로 앞서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한 데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무료 버전을 앞세워 공룡 마이크로소프트(MS) 타도에 나서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조짐이다.

애플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바부에나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레티나(망막)' 화면을 장착한 아이패드 미니 신제품(2세대)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지난해 10월 선보인 전작 아이패드 미니와 화면 크기는 같지만 해상도를 두 배인 2048×1536픽셀로 높인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제품 가격은 이전 제품과 같은 399달러(약 42만원)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중저가 7~8인치대 태블릿PC 시장에서 애플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도 애플의 행보는 예사롭지 않다. 애플은 이날부터 사진 편집 프로그램 아이포토는 물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아이무비, 음악 제작 프로그램 개러지 밴드를 비롯해 아이워크 카테고리의 페이지스, 넘버스, 키노트 프로그램까지 모두 무료로 풀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킨토시 컴퓨터를 구동하는 운영체제(OS)인 OSX '매버릭스'까지 무료로 내놨다.

이에 따라 맥 컴퓨터나 아이폰·아이패드를 사면 OS부터 모든 사무용 필수 프로그램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윈도 OS를 사는 데 17만원, 오피스365를 이용하는데 매년 12만원씩 들어가는 MS용 소프트웨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다.

IT업계 한 전문가는 "애플은 단말기와 소프트웨어를 자체 제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라며 "아이폰·아이패드의 장점을 바탕으로 SW 시장 잠식에 나서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의종기자 ...@metroseoul.co.kr

MS·노키아도 새 태블릿PC 공개

애플이 아이패드 신제품을 내놓은 23일(한국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와 노키아도 새 태블릿 PC를 공개했다.

하지만 아이패드에 쏠린 관심이 워낙 큰 탓에 이들 제품은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는 굴욕을 당했다.

MS는 서피스 2와 서피스 프로 2를 출시했다. 이들 제품은 지난해 나온 '서피스 RT'와 서피스 프로의 후속작이다. 모양에는 거의 변화가 없지만, 전력 소모 등 성능이 크게 좋아졌다는 것이 MS의 설명이다.

노키아는 자사 첫 태블릿 PC '루미아 2520'을 선보였다.

신제품은 10인치급 액정을 장착했고 윈도8.1 RT로 구동되며,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LTE 기술을 적용했다. 하지만 미국의 IT 전문 매체 씨넷은 "서피스 2 출시 행사에는 고객 빼고 다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분위기를 전달했다.

다음 '대입'서비스…1타 강사 총출동

EBS강좌부터 입시업계 콘텐츠까지 제공

EBS, 이투스, 스카이에듀, 대성마이맥의 1타 강사들이 포털 다음에 보금자리를 튼다.

다음은 수험생이 입시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찾고, 학습할 수 있도록 '대입' 서비스를 23일 새롭게 선보였다.

다음은 국내 최초로 EBS 강좌부터 입시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EBS 공략법, 과목별 학습법, 입시 자료까지 한데 모아 제공하는 대입(edu.daum.net/high/) 서비스를 오픈했다. 다음은 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BS 등과 제휴했다.

이번에 오픈한 대입 서비스는 ▲교재별·과목별 선생님별 강좌를 골라서 학습할 수 있는 'EBS 수능' ▲EBS 공략법, 과목별 학습법, 입시 전략, 이투스·스카이에듀의 무료 강좌를 제공하는 '학습 전략' ▲입시 뉴스, 입시 칼럼, 입시 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입시연구소' ▲재미, 이해, 적중 등의 요소로 선생님을 평가하고 나에게 맞는 선생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선생님'으로 구성된다.

특히 수험생들의 학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동영상 강의 플레이어에 다양한 기능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시간이 없는 수험생들을 위해 최대 2배까지 강의 속도를 빠르게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원하는 지점을 쉽게 찾아서 볼 수 있는 자막 검색 기능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다시 보고 싶은 지점을 책갈피로 저장해두면 언제든 마이(MY) 메뉴에서 선택해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음은 수험생들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수능시험을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이투스, 스카이에듀, 대성마이맥, 공신닷컴의 유명 강사들과 함께 제작한 '꼭 풀어봐야 할 기출문제 베스트 5',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EBS 요점 정리' 등의 D-15 마무리 전략 콘텐츠를 독점 공개한다.

'리크루터 SNS' 링크드인 모바일 앱으로도 서비스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

전 세계 2억38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비즈니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링크드인이 언제 어디서나 구직자와 구인 담당자들이 소통하도록 돕는 리크루터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기존 PC 환경에만 맞춰져있던 링크드인 리크루터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원자들이 링크드인을 통해 보낸 인메일(InMail)에 응답하고, 링크드인에 등록된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거나, 지원자에 대한 인사 담당자의 피드백을 확인하는 등 링크드인 리크루터의 기능을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00억씩 더 번 美 갑부들

톱10 CEO들 증시호황 덕 1위는 22억달러 저커버그

미국 증시 호황으로 마크 저커버그(사진)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의 수장들이 돈방석에 앉았다.

22일(현지시간) USA투데이 등 미국 언론은 기업 지배구조 평가기관인 GMI의 2012년 CEO 보수 조사 보고서를 인용, 미국의 톱10 CEO가 지난해 최소 1억 달러(약 1060억원) 이상을 벌었다고 전했다.

소득 순위 1위에 이름을 올린 저커버그는 22억7800만 달러를 챙겼다.

이어 미국 최대 천연가스관업체인 킨더모건의 리처드 킨더가 11억167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3위는 시리우스XM라디오의 멜 카마진(2억5590만달러), 4위는 리버티 미디어의 그레고리 마피에이(2억5400만 달러)가 차지했다. 애플의 팀 쿡 CEO는 1억4300만 달러로 5위였다.

GMI에 따르면 상위 10위권에 있는 CEO의 보수가 1억 달러를 넘고, 10억 달러 이상을 받은 CEO가 2명 이상 나온 것은 조사 이래 처음이다. GMI의 보고서는 북미 지역 2259개 기업 CEO의 최근 2년간 급여 내역을 조사한 것으로, 기본급에 성과급과 스톡옵션 등이 포함됐었다.

USA투데이는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CEO들의 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미기자

MS "구글이 하면 우리도"

구글 글라스 맞서 MS 글라스 개발 중… 시제품 제작 끝내고 테스트 단계

마이크로소프트(MS)가 '눈앞의 인터넷'을 꿈꾸며 '구글 글라스'에 맞서 'MS 글라스'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한 소식통을 인용, 최근 MS가 구글 글라스와 유사한 안경형 기기의 시제품을 만들어 세부 기능을 테스트 중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MS는 아시아에 있는 부품업체에 카메라 등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주요 부품을 요청한 상태다.

이 소식통은 "MS가 향후 '입는 컴퓨터(wearable computing device)'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하드웨어 부문까지 만들기로 결정했다"면서 "하지만 MS의 시제품이 테스트 수준에서 끝날지 대량 생산될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손목시계형, 클립형 등 컴퓨터를 액세서리처럼 착용하는 제품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면서 "MS가 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시제품 개발은 MS가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현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제작, 제조업체로까지 변신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시장조사업체 ABI리서치는 오는 2018년까지 입는 컴퓨터 시장의 연 매출이 4억8500만 달러(약 5100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구글 글라스는 눈을 통해 콘텐츠를 접하게 해주는 3차원 안경으로 뛰어난 사진 촬영과 음성인식 기능을 자랑한다. 지난 5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구글 연례 개발자회의에서 처음 소개돼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구글 글라스는 내년 중 시판될 예정으로 가격은 1500달러(약 170만원) 정도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600kg짜리 운석 러시아 첼랴빈스크주 체바르쿨 호수에서 인양돼 최근 역사박물관으로 옮겨진 무게 600kg의 거대 운석을 22일(현지시간) 관람객들이 구경하고 있다. /이타르타스 연합뉴스

日법원, 한국인 야스쿠니 합사취소 항소 1분 만에 기각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의 합사 취소 요구가 2심 재판부에서도 기각됐다.

23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고등법원 재판부는 살아있는 데 야스쿠니에 합사된 김희종(88)씨와 한국인 강제동원피해자 유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은 개정한지 1분도 안돼서 끝났다.

재판부는 "원고는 신사의 종교적 행위로 기분이 상했다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하지만 타인의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관용적 태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조선미기자

명문 칭화대 입학한 13세 신동

metro Hong Kong

중국 산시성의 13세 신동이 칭화대에 합격해 많은 중국 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22일 메트로 홍콩이 전했다.

산시성 허취(河曲)현 출신의 판수카이는 2세 때 덧셈·뺄셈·곱셈·나눗셈을 마스터했고, 5세에 초등학교 입학, 7세 때 중학교 입학에 이어 결국 13세에 칭화대 학생이 됐다.

지난 8월 그는 칭화대 입학 수속을 밟았다. 안경을 쓰고 중학생의 얼굴을 한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신의 의견을 조리있게 말했다. 이 장면을 본 천지닝 칭화대 총장은 "말이나 행동 모두 또래와는 전혀 다른 어른 같아서 놀랐다"고 말했다.

판수카이가 이렇게 신동으로 성장한 데는 어머니 왕징의 힘이 컸다. 왕징은 중학교 물리 교사로 아들과 공부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또 왕징은 아이에게 좋은 생활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아들과 함께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취침했다.

왕징은 밤새 수업 준비를 했어도 다음날 아이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가 솔선수범하는 것을 본 판수카이는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도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 있으면 두 말 않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 습관은 지금까지 이어져 판수카이는 시계알람을 맞추지 않고도 일어난다.

왕징은 "공부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많은 부모들이 결과에만 관심을 갖고 과정을 무시한다"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 노력하라"고 조언했다.

/정리=조선미기자

성년 연령 18→16세 추진 논란

metro France

프랑스가 조만간 성년 선고를 18세에서 16세로 낮출 전망이다.

성년 선고란 성년이 되기 전 미성년자에게 성인의 권리를 주는 것으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도다.

지난 21일 프랑스 가족부 장관 도미니크 베르티노티는 새로운 가족법 개정을 통해 성년 선고를 16세로 낮추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여론은 좋지 않은 상황. 성년 선고가 16세로 낮춰질 경우 16세부터 지방선거권이 주어진다. 또한 부모의 허락 없이도 협회를 조직할 수 있으며 자신의 학업 및 직업과 관련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성년 선고를 꼭 16세로 낮춰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는 것.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사회학자 미셸 피즈는 "미성년의 정치의식은 날이 갈수록 성숙해지고 있다. 16세의 경우 학생노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아이들의 능력은 확인됐는데 왜 그저 내버려둬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82%의 프랑스인이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리 로슈 기자·정리=정주리 인턴기자

metroentertainment

star bag

또 열애설 – "사실 아니다"

배우 정경호(왼쪽)가 소녀시대 수영과의 열애설을 또 한 번 부인했다.

2월 교제 소문이 나돈 데 이어 8개월 만에 다시 열애설이 흘러나온 것과 관련해 정경호 측은 "사실이 아니다. 앞서 밝힌 대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일 뿐이다. 현재 교제 중인 사람은 다른 일반인 여성이다"고 밝혔다. 정경호는 수영이 아닌 다른 여성과 1년째 교제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강남스타일' 유튜브 18억뷰

'월드스타'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조회 수 18억 뷰를 돌파했다.

지난해 7월 15일 공개된 이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사상 최초 10억 뷰 돌파 등 각종 기록을 갈아치웠고 현재까지 유튜브에서 역대 가장 많이 본 동영상으로 기록을 이어오고 있다.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도 이날 5억9900만 건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슈퍼주니어 월드투어 합류

슈퍼주니어의 김희철이 2년5개월 만에 월드투어에 합류한다.

2011년 5월 슈퍼쇼 3 베트남 공연 후 활동을 중단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온 그는 8월 소집 해제 후 컴백을 준비해왔다. 그는 26일 필리핀 마닐라 몰 오브 아시아 아레나에서 열리는 슈퍼쇼 5 무대에 오른다. 김희철은 앞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활동을 재개했다.

4년 사랑 결실 – 내년 1월 결혼

스윗소로우의 성진환(왼쪽)과 석미송라이터 오지은이 4년 열애 끝에 내년 1월 4일 결혼한다.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음악으로 가까워져 2009년 말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2년 전 연인 사이임을 공개했다. 성진환은 23일 팬카페에 "최대한 소박하고 조용하게 하려고 노력하며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 더 좋은 노래 열심히 부르겠다"고 밝혔다.

"힘 빼고 자연과 일상 노래했죠"

정규 6집 '꽃은 말이 없다' 발표 루시드폴

'가요계의 음유시인'으로 불리는 루시드폴(38)은 단조롭지만 잔잔하게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 싱어송라이터다. 23일 발매된 정규 6집 '꽃은 말이 없다'에서는 한층 더 힘을 빼 자연과 일상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새 앨범 소박하고 서정적

새 앨범의 느낌은 소박하고 서정적이다. 지난해 북촌의 한옥으로 이사한 루시드폴이 새한 비가 쏟아졌던 음어를 집 마당과 주변을 둘러보면서 얻은 영감을 아담해 만든 곡들로 앨범을 완성했다.

기타와 목소리만으로 꽉 찬 느낌을 주는 타이틀곡 '검은 개'는 집 앞에서 우연히 개 한 마리를 만난 뒤 적어둔 짧은 메모에서 탄생했고, '나비' '서울의 새' 늙은 금잔화' 등의 수록곡들도 루시드폴이 졸로 날아든 나비와 비둘기, 키우고 있는 꽃들을 보면서 만든 곡이다.

1998년 미선이밴드로 음악 활동을 시작해 벌써 데뷔 16년째다. 스위스 화학공학 박사 출신으로 지난해 '무국적 요리'라는 소설집을 내는 등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자유롭게 쏟아냈던 그가 일상에 눈을 돌려 작은 소중함을 추구했다.

"사람들은 작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경시하며 살아가면서 자신은 돋보이고 1등이 되고 싶은 강박이 있죠. 저 역시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음반 순위에서 1등을 하고 때 공연이 매진되는 것을 겪으면서 그렇지 못할 때는 속상함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작은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이한 기타 대거 동원 '신선한 실험' 선율은 느리지만 제 성격은 급해요

부연 설명으로 "지난해 연말 공연이 7년 만에 매진이 되지 않아 나도 회사 사람들도 놀랐다"면서 "그때 음악 외적인 부분에 대해 마음 정리를 잘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깔끔하고 서정적인 문체의 사안 가네코 마스즈의 동시와 지난해 7년 만에 보낸 1년간의 긴 휴식도 자극이 됐다고 했다.

"노래는 느리지만 성격은 급해서 걸음이 빨라요. 혼자 사는 남자라서 밥도 맛조차 모르고 빨리 먹죠. 지금은 천천히 한 번에 하나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동네 한 바퀴 도는 데 15분 걸리던 게 지금은 천천히 걸어서 25분이 걸리고, 밥도 꼭꼭 씹어 먹는답니다."

◆유럽재즈 마누쉬풍 시도

자연적인 일상을 둘러싼 소리와 풍경을 음악으로 구현하고자 모든 트랙을 피아노, 기타, 콘트라베이스 등 어쿠스틱 악기들로 녹음했다. 특히 전자·전기 증폭음을 제외한 대신 바리톤 기타, 세미바리톤 기타, 8현 나일론 기타 등 여러 종류의 기타를 사용해 음역을 확장함으로써 새로운 소리를 찾아내는 신선한 시도를 했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 그는 "15년간 음악을 하면서 무언가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해 고민했다. 그렇지만 기타 치면서 노래한다는 것만큼은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목소리에 변화를 줄 수도 없고 해서 기타 사운드를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랑하는 사람의 햇살이 돼주고 싶은 소망을 산뜻하게 노래한 더블 타이틀곡 '햇살은 따뜻해'와 '연두' 등 여타 수록곡에서도 지금까지 루시드폴의 음악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유럽의 재즈 마누쉬풍 사운드가 새롭게 시도됐다.

"4집 때 재즈 뮤지션과 처음 작업을 시도했지만 그때는 재즈의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재즈 세션 중에서도 특인 분들과 함께 작업을 했는데, 멜로디라에 없는 제 노래의 정서를 바로 캐치하고 풍성한 사운드를 만들어주셨죠. 당분간은 이런 사운드로 앨범을 낼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운드의 감상을 위해 이번 앨범을 CD로 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요즘 음원과 미니앨범이 대세라 50~60분의 러닝타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템포 늦춰서 편하게 죽 들어주세요."

/박진영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안테나뮤직 제공 디자인/박은지

나이 들기 쉬운 건조한 환절기엔

어린 얼굴로 꽉 잡아주는 모공보습

AQUA FORCE
EXTRA LOTION
OIL CUT
ORBIS

<미녀 프로골퍼>

"안신애 골프로 만났지만…"

박유천 "교제 절대 아니다"

JYJ의 박유천(사진 왼쪽)이 네 살 연하의 프로골퍼 안신애(23·우리투자증권·오른쪽)와의 열애설을 부인했다.

박유천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3일 "박유천이 올해 초 골프를 배우면서 골프를 좋아하는 지인들과의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다"며 안신애와 인연을 맺게 된 계기를 설명했고 "그러나 교제하는 사이는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박유천이 상대 부모를 만났다는 소문에 대해서는 "박유천이 매니저들과 즐겨 찾았던 강남 소재 스크린 골프장이 한 선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곳이어서 소속사 식구들과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열애설 상대인 안신애는 2008년 프로에 데뷔해 이듬해 KLPGA 신인왕을 차지했고 2010년 2승을 거둬 상금 랭킹 3위에 오르는 활약을 했다. 특히 빼어난 패션 감각과 외모로 인기를 모으며 2010~2012년 KLPGA 홍보 모델로 활동했다. 2011년 일본판 '골프다이제스트'에서 '한국여자골프 미녀 스타 베스트 11' 중 1위에 올랐고 제27회 코리아 베스트드레서 백조 어워드 스포츠 부문에서 수상했다.

한편 박유천은 봉준호 감독이 제작하고 '살인의 추억'의 각본을 쓴 심성보 감독이 연출하는 영화 '해무' 촬영에 한창이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섹시퀸' 현아 파격의 끝은 어디

가요계 컴백 앞두고 속옷 노출 티저 공개

'자체발광 섹시퀸' 포미닛의 현아(사진 왼쪽)가 데뷔 후 가장 파격적인 노출로 가요계 컴백을 알렸다.

비스트의 장현승(오른쪽)과 혼성 듀오 트러블메이커를 결성해 도발적이고 섹시한 매력을 분출했던 현아는 2년 만에 신곡 '내일은 없어'를 발표하고 장현승과 다시 호흡을 맞춘다.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23일 티저 이미지와 스팟 영상을 공개하며 28일 컴백 소식을 알렸다. 이날 공개된 사진에서 현아는 속옷 차림의 과감한 노출로 또 한 번 무대에서의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예고했다.

소속사는 "이들의 재결합 및 컴백을 바라는 … 팬들의 성원이 이어졌고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콘셉트 아래 트러블메이커는 특별한 변신을 꾀하며 음악 및 비주얼 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정품 패션브랜드 할인 풍성

하프클럽 패밀리 세일

트라이씨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하프클럽이 29일까지 '패밀리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씨스데이·아일랜드·퀵스·올젠·지스 등 하프클럽 온라인 몰 내 입점돼 있는 국내 유명 캐주얼·남성복 브랜드 등 20여 개가 참여한다.

여기에 이사베이·아니베에프 등 여성 브랜드도 대거 동참, 80%에서 최대 90%까지 할인 판매한다.

캐주얼 티셔츠의 경우 2000원, 5000원 균일가에 판매하며 청바지는 최저가 5000원, 정가 30만원대 여성 재킷은 1만원대부터 구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당일 구매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최대 5만원을 돌려주는 고객 사은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한편 정품 패션 브랜드를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하프클럽은 2001년에 오픈해 현재 회원 수 450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문의 www.halfclub.com /서지원기자

한돈 웰빙부위 "반값만 내세요"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가 23일 서울 이마트 성수점에서 '대한민국 건강식단 프로젝트, 한돈 웰빙 부위로 건강식단 만들기' 캠페인 포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24일부터 30일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 1000여 개 매장에서 한돈 웰빙 부위를 최대 50% 할인한다. /연합뉴스

혼수 쇼핑리스트 핫하네

비실속 예단삼총사 대신 커피머신·의류관리기 등 고급가전 선호경향 뚜렷

가을 웨딩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예비 부부들의 결혼 준비는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불황이 길어지면서 신혼부부들이 허례허식을 버리고 실속 있는 웨딩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값만 비싸고 자주 쓰지 않는 예단·혼수 대신 실생활에 꼭 필요한 고급 가전 제품을 선호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고품질의 커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 머신'은 단연 인기 혼수 품목으로 꼽힌다.

네스프레소의 '라티시마+'는 우유 거품 기능이 탑재돼 있어 카페라테나 카푸치노 등 밀크 커피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실키 화이트, 아이스 실버, 패션 레드 등 세련된 컬러로 주방을 한층 우아하게 만들어 준다.

예단 삼총사 중 하나인 반상기·유기 수저 세트는 너무나 없는 가격대로 부담스럽기만 하다.

덴마크 도자기 브랜드 로얄코펜하겐은 최근 한국인의 식문화에 맞는 '블루 하프 레이스 한식그릇'을 선보여 실용성으로 주목을 받았다. 고급스러운 패턴에 국그릇, 밥그릇, 찬그릇 3종 등 꼭 필요한 5종으로 구성해 웨딩 시즌을 앞두고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 함께 패션에 민감하고 바쁜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면서 의류관리기는 결혼 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LG전자의 '트롬 스타일러'는 매일 입는 양복, 니트 등 한 번 입고 빨기 애매한 의류의 냄새와 구김을 제거하고 향기까지 추가해 항상 새 옷처럼 입을 수 있게 관리해준다. 매일 아침 다림질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세탁비 절감에도 효과적이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끓는다! 쿠쿠·쿠첸 '밥솥 전쟁'

국내 밥솥 업계 1, 2위인 쿠쿠전자와 리홈쿠첸이 가을 혼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며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

리홈쿠첸은 지난해 선보인 '명품철정 클래식 IH압력밥솥'의 기능과 디자인을 개선한 10인용 밥솥을 이달 출시한다.

다음달에는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도록 와이파이 기능을 탑재한 밥솥과 6인용보다 작은 미니 밥솥도 선보인다.

리홈쿠첸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보온·예약 취사 등 시간을 절약하는 기능이나 주방 인테리어에 어울릴 수 있게 디자인에 신경썼다"고 설명했다.

쿠쿠전자는 '풀스테인리스 2.0 에코'와 '풀스테인리스 2.0'을 지난달 선보이고 주력 제품으로 밀고 있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스테인리스 특성상 깔끔한 금속 디자인과 세척이 편리한 점 때문에 젊은층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원기자

디즈니 쇼핑몰 '디즈니존' 핼러윈 맞아 할인 행사

● 디즈니 정품 온라인 쇼핑몰인 디즈니존이 '핼러윈데이'를 맞아 31일까지 프린세스 드레스 12종을 최대 40%까지 할인하고 무료 배송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백설공주·신데렐라 등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인기 드레스로 장갑·목걸이 등도 포함돼 있다. 문의 www.disneyzone.co.kr

김치용기 '락앤락 프레스' 오늘 CJ오쇼핑서 방송

● 락앤락은 24일 오전 7시15분부터 60분간 CJ오쇼핑에서 김치보관용기 '락앤락 프레스'를 판매한다고 23일 밝혔다.

락앤락 4면 결착형 뚜껑에 실리콘을 적용한 밀폐·절임 전용 누름판을 추가해 밀폐력을 강화했다. 2ℓ 용기 2개와 물김치 전용 5ℓ 용기 3개로 구성됐으며, 가격은 6만9800원.

BAT '던힐' 담배 부드러운 맛의 신제품 2종 출시

●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코리아가 '던힐 스위치 6mg'과 '던힐 스위치 원' 등 2종을 출시했다.

필터 내에 넣은 캡슐이 터지기 전후로 던힐 특유의 부드러운 맛과 상쾌한 여운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타르 함량은 각각 6.0mg과 1.5mg이며 가격은 모두 2700원.

강강술래 '가을애 힐링 페스티벌' 손짓

홈페이지에 신청글 남기면 플라잉요가 1년권 등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sullai.com)가 스트레스와 일상에 지친 고객들에게 삶의 활력을 주기 위해 '가을애(愛) 힐링 페스티벌'을 벌인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 고객마당(이벤트 참여)에 신청글을 남기면 아메리카핏요가의 플라잉요가 등 최신 트렌드 요가를 경험할 수 있도록 1년 VIP회원권(1명), 6개월(5명), 1개월(20명) 회원권을 증정하며 신청자 전원에게는 3회 무료 수업권을 준다.

또 혈액순환 개선·노화 방지·면역력 강화 등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인 이브케지오의 튜리스 자력이불(23만원·5명)과 직영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칭구상품권(5만원·30명)도 증정한다.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네 명의 청춘 남녀가 사랑과 명예 꿈을 걸고 벌이는 인생 승부를 따라가면서도 유쾌하게 그린 뮤지컬 '아가씨와 건달들' 티켓도 증정한다.

이달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sullaimall.com)과 전화 주문(080-925-9292)을 통해서는 한우사골곰탕 소용량 선물세트(350㎖×5팩·10인분)는 1만8900원에 40% 할인 판매한다. 10팩짜리 소용량 세트(350㎖×20인분)는 3만7800원에 40% 할인 판매하며 구입 시 올인원 쥬크화장품(1만원 상당)을 증정한다.

흑염자와 국내산 돼지고기가 70% 함유된 흑염자한돈너비아니(3세트 1.08kg)는 40% 할인된 2만1600원에 선보인다.

고양 능곡능원점과 상계점은 11월 7일까지 소고기 메뉴를 시키면 한우본고기를, 돼지고기 메뉴를 시키면 돼지왕갈구이를 나갈 때 주문한 인분 수만큼 포장해준다. /서지원기자

OD MUSICAL COMPANY, CJ E&M & PHOENIX ENTERTAINMENT Present

GREASE

Grease!

내가 선택한 첫 뮤지컬!

No.1 뮤지컬 그리스

2013.10.22 ~ OPEN RUN | 대학로 유니플렉스

[예매] 인터파크 1544-1555 오픈리뷰 1588-5212

퇴행성관절염 '노년층 전유물' 아니다

비만·외상 등 인해 젊은층서도 발병…최근 '줄기세포연골재생술' 부작용 없는 치료 가능

퇴행성관절염은 말 그대로 관절과 연골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발생한다. 따라서 50대 이상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최근에는 20~30대 젊은층에서도 심심찮게 퇴행성관절염을 찾아볼 수 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거주하는 신모(32)씨 역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얼마전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오랫동안 과체중으로 지내온 신씨는 최근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다 무릎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여기에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환절기가 되면서 통증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았다가 퇴행성관절염임을 알게 됐다.

신씨가 퇴행성관절염에 걸린 이유는 비만 이었다. 서 있거나 걸어다닐 때 사람의 체중은 무릎에 그대로 실리는데, 과체중일 경우는 관절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세바른병원 강서점 고재현 원장은 "노화의 비만 외에 관절연골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외상이나 유전적인 영향도 퇴행성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골 손상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줄기세포연골재생술

보통 퇴행성관절염은 초기에 발견하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를 시행하고, 상태가 심한 경우 인공관절치환술 같은 수술적 치료법을 고려하게 된다. 그러나 신씨처럼 환자 나이가 어리고, 연골의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줄기세포연골재생술을 권할 수 있다.

세바른병원 강서점 고재현 원장이 퇴행성관절염 환자와 상담하고 있다.

줄기세포연골재생술은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활용해 남아있는 연골을 재생시키고, 관절의 상태를 원래에 가깝게 복원하는 것이다. 우선 환자의 골수나 복부 지방을 채취한 뒤 이것을 원심분리기에 넣어 활발한 줄기세포만을 분리한다. 분리한 줄기세포는 조직 손상 부위에 직접 주입된다.

세바른병원 강서점 안수천 원장은 "줄기세포는 일단 주입되면 주변 조직과 유사하게 분화하고 성장인자와 함께 손상된 조직을 신속히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치료 원리를 설명했다.

줄기세포연골재생술은 환자에게서 직접 줄기세포를 얻으므로 거부반응 없이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다. 또한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술 없이 근본적으로 조직 재생을 유도한다는 점도 장점이다.

다만 재생시킬 수 있는 연골이 남아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골의 손상 범위가 크지 않아야 하며, 15세 이상 50세 이하의 연령층에 적합하다. 또한 줄기세포연골재생술을 받은 후에는 2주간 자가운 찜질을 해주고 음주나 사우나, 과격한 운동 등은 삼가야 한다.

세바른병원 강서점은 퇴행성관절염은 물론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석회화건염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병할 수 있는 관절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이다. 줄기세포연골재생술과 함께 관절내시경수술, DNA프롤로치료, 자가연골이식술, 인공관절치환술 등 다양한 치료법을 폭넓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어깨관절치료센터·류마티스센터를 새롭게 선보이며 환자들이 자신의 증상에 따라 차별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더해나가고 있다. 또한 평일과 마찬가지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전문의들이 직접 진료에 나서며 환자들의 편의를 돌보고 있다. 문의 1588-3094

/박지원기자

산행 땐 마그네슘 드세요

아웃도어 활동 힘 주는 건강기능 식품들 눈길

가을을 맞아 등산·트레킹·캠핑을 나서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안전한 아웃도어 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야외 활동이 잦은 계절에 꼭 챙겨야 할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했다.

야외 캠핑이나 산행 등을 할 때는 시간당 약 300㎉ 이상을 소모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많은 체내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너지를 보충해줄 수 있는 간식이나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신경과 근육 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는 마그네슘과 치내 에너지 심상에 관여하는 나이아신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평소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았다면 근육이나 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져 부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바깥 활동 전에는 준비운동을 통해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고, 평소 글루코사민과 N-아세틸글루코사민·디메틸설폰(MSM) 등을 챙겨 먹어 관절 건강에 신경을 쓰는 게 좋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온종일 밖에 있으면 면역력과 체온조절 기능이 떨어지기 쉽게 피로해지고 감기에 걸린다. 대표적인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인삼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당귀혼합추출물 역시 면역기능 개선에 효과적이다.

/박지원기자 jwpark@metroseoul.co.kr

이대목동병원 건립 후원자 초청의 밤 '감동'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이 지난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이대목동병원 건립 후원자 초청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대목동병원 개원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순남 의료원장과 유권 이대목동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 등 의료원 관계자와 역대 기관장 및 동창회장, 퇴직 교직원 등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인 이화학당을 세운 메리 스크랜턴 여사를 기리는 센느 하느 '스크랜턴 여사의 재생'문 공연과 이화여자대학교 중창단 '비체나'의 축하 공연이 이어졌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이대목동병원이 20여 년 동안 환자들로부터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건립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기자

건강 책꽂이

■고혈압 3개월에 약 없이 완치하기

유태우/삼성출판 북스

한국인의 고혈압은 유전이나 짜게 먹기·음주·흡연 등 생활 습관이 원인이 아니다. 저자는 고혈압의 근본 원인으로 스트레스, 예민한 몸과 마음, 비만 등을 꼽으며 약과 시술이 아닌 선택과 훈련으로 고혈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흔히 고혈압에 걸리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저자는 삶의 변화와 훈련을 통해 완치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감칠맛과 MSG 이야기

최낙언/리북

일반적으로 MSG는 화학물질을 인공적으로 조합한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김치나 된장처럼 미생물 발효를 통해 얻은 글루탐산이다. 또 MSG가 천식·아토피 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후속 연구에 의해 잘못된 것임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우리가 익히알고 있는 단맛·짠맛·신맛·쓴맛 외에 '감칠맛'으로 대표되는 식품첨가물, MSG에 대해 낱낱이 파헤쳤다.

지난해 벌교 꼬막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갯벌에서 꼬막캐기 체험을 하고 있다. 아래사진은 꼬막까기 행사 장면

쫄깃한 가을? 꼬막에게 물어봐

27~29일 보성 '벌교 꼬막축제'

여자만 깊은 갯벌서 속살 꽉꽉 조정래 소설 등장 전국 유명세 뻘배타기·문학기행 '2색 재미'

남도 대표 먹을거리인 꼬막이 제철을 맞았다. 꼬막의 주산지인 전남 보성군 벌교에서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꼬막 및 따라 태백산맥 문학기행을 벌교에서"라는 주제로 '제12회 벌교 꼬막축제'가 열린다. 깊어가는 가을, 알차게 맛이 든 꼬막 잔치로 초대한다.

◆쉬엇 먹고 즐기는 임금님 진상품

축제의 주인공인 꼬막은 예로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벌교 꼬막은 천혜의 자연환경인 여자만의 깊고 차진 갯벌에서 채취돼 다른 어느 지역에서 잡은 꼬막보다도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축제는 주인공 이름에 걸맞게 꼬막을 중심으로 진행돼 축제를 찾는 누구나 꼬막의 참맛을 만끽할 수 있다. 축제 첫날에는 꼬막과 벌교 각 마을의 특산물을 넣어 만든 대형 꼬막 비빔밥 만들기 행사가 진행된다. 꼬막을 좋음께 관광객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꼬막 던지기 및 꼬막 까기, 꼬막 무게 알아맞히기 대회, 뻘배 타기 대회 등의 체험 행사가 이어진다. 축제장에는 꼬막 캐릭터와 캐릭터 상징물 포토존이 마련돼 꼬막과 함께 색다른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주말에는 꼬막 삶기와 시식 체험도 벌어진다.

◆다양한 놀거리가 가득한 축제

축제는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남도 최고의 먹거리 축제인 만큼 즐길거리도 풍성하다.

첫날 페러글라이딩 공연을 시작으로 농악놀이, 민속 윷놀이, 가야금 병창 공연, 쿠바 7080 콘서트 등 맛깔스럽고 흥겨운 행사가 이어진다. 또 매일 진행되는 선상 불꽃쇼가 밤바다와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고, 관광객들이 직접 만들어 달 수 있는 소원등 역시 축제를 한없이 밝게 비춘다.

이와 함께 갯벌 생물 캐릭터 만들기 체험, 어린이 친환경 놀이 체험, 갯벌에서 즐기는 꼬막 캐기·단리기·뻘배 타기 체험 등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꼬막 채취 도구 전시와 태백산맥 안을 공예품 전시, 벌교 사진 전시회, 보성 녹차 시음회 등도 열린다.

◆태백산맥을 만나다

벌교 꼬막이 소설가 조정래의 '태백산맥'으로 인해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었던 만큼 축제에는 태백산맥을 열리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된다.

태백산맥 문학 기행, 태백산맥 OX퀴즈, 태백산맥 문학 공연제 공연, 어울제 등이 진행되는데 특히 27일 열리는 문학 기행이 눈에 띈다. 문학 기행은 관광객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태백산맥의 주 무대인 중도 방죽과 현부자집, 소화의 집, 소화다리를 거쳐 벌교역으로 이어지는 탐방으로 구성되며 생생한 해설과 연극을 통해 살아있는 태백산맥을 경험할 수 있다.

또 벌교에 안남을 기원하며 불행한 시대에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을 달래기 위한 살풀이 공연과 벌교 읍민과 관광객의 화합을 다지는 공연으로 꾸며지는 어울제도 놓칠 수 없는 즐거리다.

/유재희기자 jsou 38@metroseoul.co.kr

- 날짜 10월 25~27일(금~일요일)
- 장소 전남 보성군 벌교천변 특설 무대 및 갯벌 체험장 일원
- 문의 벌교꼬막축제추진위원회 061)857-7676

차향으로 샤워 후 쥐라기 시대로

보성은 꼬막만큼 한국차의 명산지와 공룡알 동지로 잘 알려진 곳이다. 꼬막만큼 흥미로운 보성을 만나보자.

◆보성차밭·한국차박물관서 '힐링'

보성차밭(대한다원)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차(茶) 관광농원이다. 보성읍 일대가 내려다보이는 산록에 자리 잡은 차밭은 드넓은 평원을 형성해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봉로(峯露)'라는 이름의 한국차 전문점에서는 향긋한 차 맛을 느낄 수 있으며 직접 찻잎을 따보는 체험도 가능해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보성에 오면 보성차밭과 함께 누구나 거쳐 가는 곳인 한국차박물관은 차밭과 인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차를 이해할 수 있는 '차 문화실', 차의 발자취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차 역사실'을 돌아본 후 박물관에서 방문객들을 위해 마련한 '차 생활실'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차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국내 최대 공룡알 동지 화석 흥미진진

공룡알 화석지는 지난 2000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우리나라 최대의 공룡알 둥지가 발견돼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기도 하다. 화석지를 찾은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관찰 데크를 따라 화석지 현장 학습을 즐길 수 있다. 퇴석지와 어우러지는 풍경은 올가을 멋진 추억을 남겨준다. /유재희기자

구석구석

◆전주비빔밥축제
- 날짜 10월 24~27일
- 장소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한국 음식의 전통을 잇고 한식의 세계화를 지향하는 축제로 지난해 성공적인 평가를 받은 33개 등(業)이 참여한다. 만비당 비빔 퍼포먼스와 전국 요리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나는 셰프다', 이색 비빔밥 거리, 내 몸에 맞는 비빔밥, 비빔밥 스탬프 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또 한옥마을 우수 음식점에서는 축제 기간 동안 특별 비빔밥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고성명태축제
- 날짜 10월 24~27일
- 장소 강원 고성군 거진항 일원

'고성 명태는 행운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축제는 전통 명태 요리를 직접 재현하는 한편 명태 행운얼자, 샌드 아트 체험, 지어 방유 행사, 명태 덕고나 체험 등의 방문객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특히 고성 명태를 현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장터시장과 시음회를 통해 고성 명태와 고성군 대표 음식도 맛볼 수 있다.

◆부산고등어축제
- 날짜 10월 25~27일
- 장소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일원

축제는 고등어를 재료로 요리 솜씨를 뽐내는 전국 고등어요리 경연대회, 맨손으로 고등어 잡기, 고등어 짜녀구이 체험, 고등어 경매 잔치 등 고등어를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27일에는 전국 고등어 씨름대회가 개최되며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위해 고등어 요리 체험교실, 명품 고등어 요리관, 고등어 홍보관 등의 체험 부스도 마련된다.

'3연패 여유만만' 사자 vs '우승 자신만만' 곰

삼성-두산 오늘 달구벌서 한국시리즈 첫판
"믿을맨 윤성환 컨디션 굿" "발야구의 힘"

2013 한국야쿠르트 세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7전4승제)에서 맞붙는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가 날선 입담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대결을 예고했다.

1차전을 하루 앞둔 23일 대구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삼성의 최형우는 "늘 해오던 KS라 긴장하는 것도 없고 오히려 시리즈를 기다리느라 지쳤다.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고 상대를 제압했다.

플레이오프 최우수선수인 두산의 유희관은 "삼성의 3년 연속 우승보다 두산이 우승하는 게 더 재미있지 않겠느냐"고 받아치며 "삼성이 3주를 쉬었다는데 우리도 3일은 충분히 쉬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규리그 다승 공동 1위(14승)임에도 개막 전 두산전에서 만루홈런 두 방을 내주는 굴욕을 당했던 삼성 배영수는 "김현수와 오재원에게 올 시즌 많이 맞았는데 이제 갚아줄 때가 됐다"고 명예 회복을 다짐했다.

두산의 주장 홍성흔은 "포스트시즌을 치르면서 우리 선수들이 정말 차분하게 경기를 잘 풀었다. 삼성은 빈틈을 찾아보기 어려운 팀인 만큼 작전을 잘 짜 대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양 팀 감독들은 치열한 전략 대결로 우승을 자신했다.

삼성 류중일 감독은 "1차전 선발로 나서는 윤성환은 우리 투수 중 컨디션이 가장 좋다. 지난해 KS에서도 1차전 선발로 나서는 등 2승을 거뒀다"며 신뢰를 나타냈다.

이어 유격수 김상수와 2루수 조동찬의 부상 공백에 대해 "정병곤, 김태완으로 키스톤 콤비를 꾸리게 됐다"고 밝혔고, 두산의 발 빠른 주자를 견제하고자 투수들의 퀵 모션을 재점검했다고 말했다.

두산 김진욱 감독은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로 승리를 따낸 노경은을 KS 1차전 선발로 내세우겠다고 밝혔고, "체력 탓에 도루를 자주 시도하지 않았는데 마지막에 온 만큼 뛸 수 있는 선수들은 모두 뛰도록 하겠다"고 기동력 야구를 예고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웃고 있지만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 감독과 선수들이 23일 대구시민체육관에서 열린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미디어데이에서 우승 트로피 앞에서 밝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유희관·홍성흔 선수, 김진욱 감독(이상 두산), 류중일 감독, 최형우·배영수 선수(이상 삼성). /뉴시스

리디아 고 프로골퍼 GO~

아마추어 여자골프 세계 랭킹 1위 리디아 고(16·뉴질랜드·사진)가 마침내 프로 전향을 선언했다.

리디아 고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는 글과 함께 유튜브에 "프로로 전향하겠다"는 말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고보경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뉴질랜드 교포인 리디아 고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2승을 포함해 프로 대회에서 통산 4승을 거뒀다. 최근 3년 가까이 아마추어 세계 랭킹 1위를 지켜왔고, 프로 세계 랭킹에도 4위에 올라 그가 과연 언제 프로 전향을 할 것인지에 전 세계 골프 팬들의 관심이 쏠려왔다.

LPGA 투어 역사상 아마추어 선수 최초로 대회 2연패를 이루는 등 프로 무대에서 맹활약했지만 아마추어 신분이라 받지 못한 상금만 120만 달러(약 12억6000만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디아 고는 다음달 LPGA 투어 시즌 최종전인 CME그룹 타이틀홀더스에 프로 자격으로 처음 출전할 예정이다. 그러나 LPGA 투어 회원이 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프로 전향 후 곧바로 LPGA 투어 회원 자격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순호기자

3연패 양학선…3관왕 사재혁

양학선과 사재혁이 23일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남자 일반부 도마 결선과 역도 77kg급에 각각 출전해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재혁은 인상 150kg, 용상 190kg, 합계 340kg으로 3관왕에 올랐다. /연합뉴스

올림픽 스타들이 부상 투혼을 딛고 전국체전에서 금빛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도마의 신' 양학선(한국체대·광주)은 23일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기계체조 남자 일반부 도마 결선에서 1·2차 시기 평균 15.112점을 얻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개인 도마 3연패다.

21일 기술을 점검하다가 오른발 부상을 당한 양학선은 소속 시·도인 광주를 위해 고통을 참으며 명성에 걸맞은 화려한 기술을 과시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역도 금메달을 땄지만 런던올림픽에서 팔이 빠지는 사고를 당했던 사재혁(제주도청)은 1년여 넘는 재활 끝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는 이날 열린 남자 일반부 77kg급에서 인상 150kg, 용상 190kg, 합계 340kg을 기록해 금메달 3개를 획득했다. /유순호기자

현역 은퇴 이영표 "나는 행복한 사람"

미국프로축구(MLS)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던 이영표(36·사진)가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2000년 안양 LG(현 FC 서울)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영표는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맹활약했다. 2003년 에인트호번(네덜란드)을 시작으로 토트넘(잉글랜드), 도르트문트(독일), 알힐랄(사우디아라비아)을 거쳐 2011년 12월부터 밴쿠버 화이트캡스에서 뛰었다.

팀의 주전 수비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표는 28일 콜로라도와의 정규리그 홈경기를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난다. 이영표는 구단을 통해 "선수 생활을 하며 내가 어렸을 때 기대한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영표는 2006년 독일월드컵과 2010년남아프리카공화국월드컵에서도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그는 은퇴 후 밴쿠버에 머물며 영어와 구단 행정을 배우고, 캐나다의 대학에서 스포츠 마케팅 공부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순호기자

인삼공사 '대어' 모비스 낚았다

프로농구 안양 KGC인삼공사가 디펜딩 챔피언 울산 모비스를 꺾고 첫승을 신고했다.

인삼공사는 23일 경기도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3-2014 KB국민카드 프로농구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모비스에 85-81로 역전승 했다.

19일 고양 오리온스를 꺾고 17연승을 내달려 프로농구 최다 연승 기록을 새로 쓴 모비스는 신기록을 경신하는 데 실패했다.

한국 무대에 돌아온 아이라 클라크는 부산 KT에 2연승을 선물했다.

프로농구 전적 23일

	1Q	2Q	3Q	4Q	합계
전자랜드	8	19	22	19	68
KT	31	12	22	15	80

	1Q	2Q	3Q	4Q	합계
모비스	21	19	20	21	81
인삼공사	17	19	25	24	85

KT는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열린 인천 전자랜드와의 경기에서 클라크가 3점슛 3개를 포함해 26점을 쏟아 부은데 힘입어 80-68로 완승을 거뒀다. /[illegible]기자

SK telecom